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2

1.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이 만나고 서로 교감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배려하고 배려받는 관계는 윤리의 근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윤리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이며, 윤리적으로 행위하려는 동기는 배려에 대한 열망에서 나옵니다.



- ① 도덕 법칙의 엄격한 준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 ② 사람들과의 관계성보다 개인의 독립성을 중시한다.
- ③ 타인의 처지를 살피며 공감하는 인간관계를 맺는다.
- ④ 보살핌과 책임보다 정의와 권리의 가치를 추구한다.
- ⑤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 냉철한 이성애 따라 행동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조건이 있을 때 의식[識]이 생긴다. 의식이 생기고 커지면 내생(來生)에 다시 태어남이 있게 된다. 태어남이 있게 되면 다시 늙음과 죽음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五蘊]가 발생한다.

- ① 열반에 이르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 ② 모든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한다.
- ③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중도를 닦아야 한다.
- ④ 생로병사(生老病死)는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
- ⑤ 무명(無明)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3. 다음은 고대 동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하에 금기(禁忌)가 많을수록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에게 이로운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혼란에 빠진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기이한 물건이 더욱 많이 생기고, 법령이 많을수록 도적이 더욱 많아진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

- ① 인위적인 간섭과 조작 없이 백성을 다스린다.
- ② 강력한 법과 엄격한 벌로써 백성을 다스린다.
- ③ 백성이 인의(仁義)의 덕을 함양하도록 도와준다.
- ④ 백성이 분별적 지혜(智慧)를 갖추도록 도와준다.
- ⑤ 백성이 풍요를 누리도록 물질문명을 발달시킨다.

4.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쾌락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런데 참된 쾌락은 방탕한 쾌락이 아니라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을: 쾌락에 휩쓸리지 말라. 쾌락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쾌락을 즐긴 후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의 본성인 이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

- ① 갑: 순간적인 쾌락보다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② 갑: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③ 을: 자연의 질서를 파악하고 그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
- ④ 을: 어떤 상황에도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 ⑤ 갑, 을: 마음의 평온을 위해 검소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5.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어진 사람[仁者]은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해 주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면 남도 이루게 해 준다. 자신에 비추어 보아 남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인(仁)을 행할 수 있다.

		(A)					
	(B)						

(나) [가로 열쇠]
 (A): 오륜(五倫)의 하나로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함을 이르는 말
 (B): 노자와 함께 도가를 대표하는 사상가로 본명은 '장주(莊周)'임
 [세로 열쇠]
 (A): 개념

- ① 사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禮)를 회복한 사람이다.
- ② 내세에서의 행복을 위해 몰아일체에 이른 사람이다.
- ③ 인위적 규범을 버리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이다.
- ④ 보살행을 통해 번뇌(煩惱)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 ⑤ 인을 행함에 있어 친소(親疏)를 구별하지 않는 사람이다.

6. 현대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정의의 원칙은 사회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평등한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하는 정의의 원칙은 이후 모든 사회적 합의를 규제한다.

을: 정의의 원칙은 다원적이다.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근거에 따라, 서로 다른 절차를 통해,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이 차이들은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유래한다.

- ① 갑: 정의의 원칙은 복지를 위한 재분배 정책과 대립된다.
- ② 갑: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상황에서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다.
- ③ 을: 사회적 가치들은 단일한 기준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 ④ 을: 사회적 가치들은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정의의 원칙이 실현되면 경제적 불평등은 사라진다.

7.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신이 존재한다거나 신이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이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앙의 진리를 이해하고 신앙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는 데도 이성을 사용할 수 있다. 신앙과 이성은 모두 신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 보 기 >


ㄱ. 신앙의 진리보다 이성으로 발견한 진리가 우월하다.
 ㄴ. 신앙과 이성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조화될 수 있다.
 ㄷ. 신의 존재는 오직 신의 계시에 의해서만 증명된다.
 ㄹ. 신은 자연 세계와 인간을 창조한 존재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간은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는 네 가지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여 서로 다투고 빼앗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이나 법도에 따라 인간의 본성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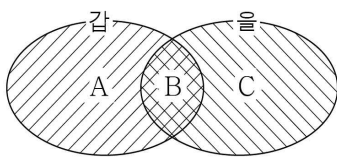
갑



을

- ① 인간에게 선천적인 덕(德)이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 ② 인간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 ③ 의(義)를 실천할 때 본성이 보존됨을 모르고 있습니다.
- ④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 ⑤ 인간의 본성은 선하게 교화해야 할 대상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9. (가)의 사회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p>갑: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개인의 이익은 물론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다.</p> <p>을: 정부가 병에 지폐를 채워 폐광에 묻은 후, 민간 기업들로 하여금 그 지폐를 다시 파내게 해 보라. 그러면 실업이 줄어들고 유효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 보 기 >

ㄱ. A: 계획 경제를 통해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켜야 한다.
 ㄴ. B: 사익 추구를 위한 자유 경쟁 원리를 인정해야 한다.
 ㄷ. C: 모든 재화가 균등하게 분배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ㄹ. C: 정부가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이자이다.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행위가 산출하는 쾌락과 고통의 양을 강도, 지속성 등의 기준으로 측정하고 비교하라.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면 선한 행위이고, 고통 쪽으로 기울면 악한 행위이다.

을: 어떤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더 가치 있음을 인정하라. 이는 공리의 원리와 어긋나지 않는다. 쾌락을 평가할 때 질을 고려하지 않고 양만을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① 행위의 선악은 결과보다 동기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가?
- ② 양을 계산할 수 있는 쾌락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가?
- ③ 쾌락의 양적 차이와 함께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하는가?
- ④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라 행위해야 하는가?
- ⑤ 쾌락의 증진과 고통의 감소는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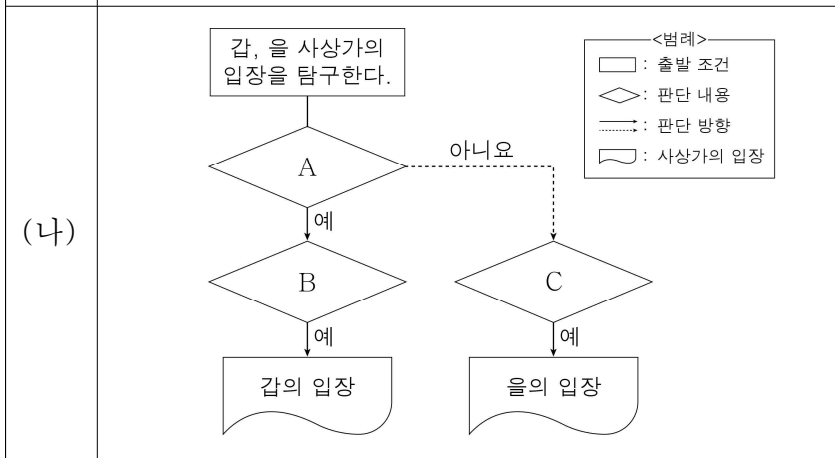
11. 한국 불교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부처의 지혜가 펼쳐져 있는 곳은 모두가 다 도량이다. 나는 이곳에서 교(敎)를 전하려 힘쓰지만 그대는 좌선 하느라 바쁘구나. 뜻을 얻으면 교와 선(禪)이 다 아름답지만 사사로운 정(情)을 따르면 모두 상하게 된다. 교선이 원융(圓融)하니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겠는가?
 을: 부처가 입으로 말한 것은 교(敎)요, 조사(祖師)가 마음으로 전한 것은 선(禪)이다. 부처의 입과 조사의 마음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어찌 그 근원은 궁구하지 않고 논쟁만 거듭하여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가? 도(道)에 들어가기 위해 돈오(頓悟)와 점수(漸修)를 해야 한다.

- ① 갑: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한다.
- ② 갑: 참선에 몰두하는 것이 경전 공부보다 중요하다.
- ③ 을: 교리 공부와 선 수행은 해탈하는 데 필요하다.
- ④ 을: 단박에 깨달은 이후에도 점진적 수행이 필요하다.
- ⑤ 갑, 을: 교종과 선종의 입장은 조화롭게 종합될 수 있다.

12.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선악은 판단된다기보다 느껴지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시인(是認)의 감정을 일으킨다면 선하고, 부인(否認)의 감정을 일으킨다면 악하다.
 을: 선악은 행위의 결과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의무로부터 그리고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 보 기 >
 ㄱ. A: 선악은 시인과 부인의 감정에 의해 구별되는가?
 ㄴ. B: 이성은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는가?
 ㄷ. C: 의무이기 때문에 행한 행위는 도덕적 행위인가?
 ㄹ. C: 도덕 법칙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인간의 영혼 안에서 이성은 지혜의 덕을, 기개는 용기의 덕을, 욕구는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 이 세 부분이 화합을 이룰 때 정의의 덕이 실현된다.
 을: 인간이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추어야 한다. 지성적 덕은 주로 교육에 의해 생기고 품성적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 보 기 >
 ㄱ. 갑: 정의는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덕이다.
 ㄴ. 을: 품성적 덕은 중용의 반복적 실천으로 얻을 수 있다.
 ㄷ. 을: 지성적 덕은 이론적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
 ㄹ. 갑, 을: 덕을 갖추지 못해도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앎[知]과 행함[行]은 항상 서로를 의지한다. 이는 마치 눈은 발이 없으면 가지 못하고 발은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군이 선후를 논하면 앎이 먼저이고 경중을 논하면 행함이 중요하다.
 을: 앎이 진실하고 독실한 것이 바로 행함이며, 행함을 밝게 깨닫고 정밀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앎이다. 앎과 행함의 공부는 떨어질 수 없다. 행하지 않으면 이를 앎이라 하기에는 부족하다.

- ① 갑: 앎과 실천은 서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 ② 갑: 앎을 얻는 것이 앎의 실천보다 중요하다.
- ③ 을: 앎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 ④ 을: 마음 안뿐만 아니라 마음 밖에도 이치가 있다.
- ⑤ 갑, 을: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 후에야 실천이 가능하다.

15. 다음은 근대 서양 사상가와의 가상 인터뷰이다. 이 사상가가 중시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질문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사상가: 신을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정신의 만족입니다.
 질문자: 당신이 말하는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상가: 신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이며 유일한 실체입니다.

- ① 온전한 이성적 삶을 위해 모든 감정을 제거한다.
- ② 자연법칙을 초월한 삶을 위해 자유의지를 발휘한다.
- ③ 인격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종교적 덕을 실천한다.
- ④ 자연과 구분되는 실체로서의 인간을 이성적으로 탐구한다.
- ⑤ 평온한 삶을 위해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통찰한다.

[16~17]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주희는 “사단(四端)은 이(理)의 발(發)이요, 칠정(七情)은 기(氣)의 발이다.”라고 했으니, 사단이 이의 발이라 함은 진실로 의심할 수 없다. 칠정은 이와 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으므로 그 발하는 바가 오직 기에 의거한 것은 아니지만 또한 기의 섞임이 없지는 않으므로 기의 발이라 이른다.

을: 주희가 “사단은 이의 발이요, 칠정은 기의 발이다.”라고 한 본뜻은 사단은 오로지 이만을 말하고 칠정은 이와 기를 겸하여 말한 것일 뿐이지, 사단은 이가 먼저 발하고 칠정은 기가 먼저 발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직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것만이 옳다. 칠정뿐만 아니라 사단도 역시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것이다.

1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은 기만이 발하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 ② 갑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같다고 본다.
- ③ 을은 이와 기가 항상 서로 발한다고 본다.
- ④ 을은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⑤ 갑, 을은 사단을 이가 발한 것으로 본다.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람의 성(性)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嗜好)이다. 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측은(惻隱)과 사양(辭讓)의 마음이 있으며, 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수오(羞惡)와 시비(是非)의 마음이 있다. 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인의예지의 덕을 이룰 수 있다.

- ① 사람은 누구나 사단을 확충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② 사덕이 선천적으로 마음 안에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③ 사단을 실천함으로써 사덕이 형성됨을 모르고 있다.
- ④ 사람이 사덕을 실현해야만 성인이 됨을 모르고 있다.
- ⑤ 사덕도 언제든지 악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모르고 있다.

18. (가), (나) 사회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모든 지배 계급을 공산주의 혁명 앞에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으며 얻을 것은 온 세상이다.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나) 사회주의는 민중을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자유 속에서 민주적 방법에 의해 점진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 ① (가)는 능력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② (가)는 계급 갈등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 ③ (나)는 혁명에 의해 계급과 국가를 소멸해야 한다고 본다.
- ④ (나)는 의회 활동을 통한 사회 개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19. (가)를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미리 정해진 인간의 본질은 없다.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는 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실존한 이후에 스스로가 생각하는 무엇이고, 또한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이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이 아니다.
(나)	학생: 어떻게 해야 참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나요? 사상가: _____ ㉠

- ① 인간의 타고난 본질을 인식하고 실현해야 하네.
- ② 절대자에게 의지하여 참된 실존을 찾아야 하네.
- ③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관습을 충실하게 따라야 하네.
- ④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마음의 평화를 지켜야 하네.
- ⑤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하네.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 본성에 따라 국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다. 국가는 모든 공동체 중 최고의 공동체로서 최고선을 실현하려 한다.

을: 인간이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오직 국가로부터 얻는 이익 때문이다. 국가의 구성원이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은 안전과 보호이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근거를 인간의 본성에서 찾았으며, ㉡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 때 사람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을은 ㉢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근거를 국가에서 얻는 이익에서 찾았으며, ㉣ 국가로부터 얻는 이익이 중단될 때 복종의 의무도 중단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국가와 맺은 사회 계약에서 정치적 의무가 생긴다고 보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